

#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인식에 따른 교육 활성화 방안

##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

정지연\* · 심정신\*\* · 신상열\*\*\*

### Plan for Activation of CPR by Laypersons

Ji-Yeon jung\* · Chung-Sin Shin\*\* · Sang-Yol Sin\*\*\*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표주박형의 고령화, 선진국형 인구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급사(급성 심정지)의 발생 가능성은 30대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30명에 불과하지만, 50대에는 인구 10만 명당 100명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60대에 300명, 70대에 7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한다<sup>1)</sup>. 따라서 심혈관 질환의 급격한 증가와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급사환자의 발생률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sup>2)</sup>.

심정지 발생 후 4~6분이 경과하면 치명적인 비가역적 뇌 손상이 발생하므로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부터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여부가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소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sup>3,4)</sup>. 병원이외의 장소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의료 체계에 신고에서 기본심폐소생술을 시작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제세동을 시행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전문인명구조술을 시행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심정

지시 심전도 소견이 예후와 연관된다는 사실은 여러 보고를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심정지 발생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소요 시간은 환자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이다<sup>5)</sup>.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슬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적절히 시행되지 않으면 심정지 환자의 소생은 기대하기 어렵다<sup>3)</sup>.

병원이외의 심정지 대다수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사람도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로 나타났으며<sup>6)</sup>, 고위험 환자들의 경우도 70% 이상이 집에서 심정지 상황이 발생하므로 일반인들에게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교육함으로써 응급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7)</sup>. 외국의 경우 심정지가 목격되는 순간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목격된 환자의 경우 생존율이 26%까지 나타나 목격되지 않은 경우 4%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던 환자에서 초기 심전도 소견 중 심실세동이 더 많이 발견되었고 생존율도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sup>8)</sup>. Ritter<sup>9)</sup> 등의 연구에서도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11.9%가 생존한 반면,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시행되지 않은 경우 4.7%만이 생존하였다고 보고하였고, Thomson<sup>10)</sup> 등은 병원 전 심정지 환자에

\* 전주기전대학 응급구조과  
\*\* 전북과학대학 간호과  
\*\*\* 전라북도 응급의료정보센터

게 최초 발견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43%가 생존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21%에 그쳤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연구에서 보듯이 심정지 발생 시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심정지 후 빠른 심폐소생술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반인에 의한 소생술은 전무하여, 서구와 달리 목격여부에 의한 생존율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이다<sup>11)</sup>. 따라서 현장에서의 기본인명구조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일반인들에게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응급환자 발생에서부터 응급실까지의 이송 시간은 30분 이상<sup>12,13)</sup>인 것으로 나타나 최초 목격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sup>4)</sup>.

1992년 세계심폐소생술위원회(ILCOR: 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가 발족되었으며, 1997년 ILCOR에서 단일화된 심폐소생술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심폐소생술 지침을 근거로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에서는 심장학회 등 전문 의료인들은 주축으로 적십자가, 병원, 학교 등에서 훈련된 강사에 의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미국심장협회(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는 심폐소생술의 초기 단계를 담당하는 일반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본심폐소생술의 단계를 간소화한 2005년 심폐소생술 지침을 발표하였다<sup>14)</sup>. AHA에서 발표한 2005 심폐소생술 및 응급심장치료 지침(2005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ac care; 이하)은 일반인들이 수행하거나 기억하기에 쉽게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나, 병원전 단계에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각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에 대해 강의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up>15)</sup>.

그러나 심폐소생술을 응급구조사, 의료인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소생술 보급률과 교육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봄으로써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일반인의 교육 및 수행의 활성화 방안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심폐소생술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응급환자 소생률을 제고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반인 대상의 심폐소생술 인식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2007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라북도에 소재한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수락한 84명에게 설문지를 84부 배부하고 그중 불완전한 6부를 제외한 총 7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로는 김숙향<sup>4)</sup>의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3문항, 응급상황 경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 5문항,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인식 8 문항, 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태도 5문항, 구호자 보호법에 대한 인식 3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1 Version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후 분석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일반적 특성별 각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chi^2$ -test를 사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빈도와 백분율은 <표 1>과 같다. 성별 상태를 보면 남자가 98.7%, 여자가 1.3%였다. 나이별로는 40~49세가 66.7%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가 23.1%, 50세

이상이 7.7%, 20~29세가 2.6%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16~20년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11~15년 30.8%, 21~25년 20.5%, 5~10년 7.7%, 5년 미만 5.1%, 26년 이상 2.6%의 순이었다.

### 2. 응급상황 노출 경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

응급상황 노출 경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을 경험해 본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78명 중 8명만이 경험해 봤으며 그중 단 1명, 즉 1.3%만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였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심폐소생술에 자신이 없어서’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 할 상태 인지 임상적 판단이 서지 않아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환자 상태가 나로 인해 악화될까봐’는 14.3%로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이나 수행이 보편화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82.1%가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 응답을 했다. 부정적 응답자 64명이 응답한 보편화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을 선택한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78)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성 별	남	77	98.7
	여	1	1.3
나 이	20~29	2	2.6
	30~39	18	23.1
	40~49	52	66.7
	50세 이상	6	7.7
	5년 미만	4	5.1
	5~10	6	7.7
근무 경력	11~15	24	30.8
	16~20	26	33.3
	21~25	16	20.5
	26년 이상	2	2.6

〈표 2〉 응급상황 노출 경험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

(N = 78)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응급상황 경험 유무	예	8	10.3
	아니오	70	89.7
심폐소생술 수행여부 (n = 8)	예	1	12.5
	아니오	7	87.5
- 수행하지 않은 이유 (n = 7)	심폐소생술에 자신이 없어서	3	42.8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1	14.3
	다른사람(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이 있어서	1	14.3
	심폐소생술을 시행 할 상태인지 임상적 판단이 서지 않아서	1	14.3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환자 상태가 나로 인해 악화될까봐	1	14.3
심폐소생술이 보편화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예	14	17.9
	아니오	64	82.1
보편화 되지 않은 이유 (n = 64)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	32	50.1
	구호자 보호법 등의 법체계 미비	3	4.7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 부족	14	21.8
	주로 의료인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라 생각해서	13	20.3
	기타	2	3.1

응답이 50.1%였으며 그 뒤를 이어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 부족’이 21.8%, ‘주로 의료인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라 생각해서’ 20.3%, ‘구호자 보호법 등의 법체계 미비’ 4.7%, ‘기타’ 3.1% 순으로 나타났다.

김종근<sup>6)</sup> 등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심정지 환자의 77.5%가 실제로 목격되었는데 이중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하였으며, 병원 도착 전 심정지로 내원한 영아의 경우에도 병원 도착 전 처치는 31.1%에서만 시행되었는데 이는 119를 통해 내원하였거나, 병원간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에서만 실시되었고, 부모 및 친척에 의해서는 전혀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였다.

김숙향<sup>4)</sup>의 연구에서 심정지를 경험했던 16명 중 8명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시행하지 않은 8명 중 5명은 이미 다른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률이 50%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상자들이

비의료인이기는 하나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본 연구 대상자보다 평상시 응급상황의 대처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3.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및 교육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인식

심폐소생술 교육경험 및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전 교육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65.4%가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육 주체기관은 적십자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이 27.5%, 군대 19.6%, 기타 11.7%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교육이 5.9%로 낮게 나타났다.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 하는가?’라는 질문에 94.8%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교육시작 시기로는 중·고등학교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61.5%, 초등학교가 34.5% 순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교육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8명 중 96.2%가 그렇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 이유로는 ‘응급 상황시 당황하

〈표 3〉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및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인식

(N = 78)

특 성	구 분	실수	백분율(%)
이전 교육경험	예	51	65.4
	아니오	27	34.6
교육 주체기관 (n = 51)	학교	3	5.9
	군대	10	19.6
	적십자	17	33.3
	예비군(민방위)	1	2.0
	병원	14	27.5
	기타	6	11.7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교육 필요성 여부	예	74	94.8
	아니오	4	5.2
심폐소생술 교육 시작 시기	초등학교	27	34.6
	중·고등학교	48	61.5
	대학교	1	1.3
	직장	2	2.6
심폐소생술 반복 필요 여부	예	75	96.2
	아니오	3	3.8
심폐소생술 반복 필요성 이유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	5	6.4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해	23	29.5
	가이드라인이 바뀌기 때문에	1	1.3
	응급 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	49	62.8
심폐소생술 교육 반복주기	3개월 미만	2	2.6
	3~6개월	16	20.5
	6~12개월	31	39.7
	1~2년	26	33.3
	기타	3	3.8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 방안	학교 교육의 의무화	62	79.5
	직장 내 교육의 의무화	10	12.8
	운전면허 교부시 교육 의무화	3	3.8
	고위험 환자 가족의 교육 확대 실시	3	3.8

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62.8%로 가장 많았다.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29.5%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심폐소생술의 반복주기로는 '6~12개월'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1년~2년 33.3%, 3~6개월 20.5% 순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교육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선택하라는 질문에서는 '학교 교육의 의무화'가 79.5%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내교육의 의무화'가 12.8%, '운전면허 교부시 교육 의무화'와 '고위험

환자 가족의 교육 확대실시'는 3.8%로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 최초 목격자가 초기에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을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고등학교에서 일반인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이 정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sup>15)</sup>, 김숙향<sup>4)</sup>의 연구결과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문희<sup>17)</sup>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들도 응급상황에 직면하면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의 의무화와 반복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 4.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 및 수행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인식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 및 수행활성화 방안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족의 심정지 목격시 84.6%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15.4%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시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혹시 해를 끼칠까봐 겁이 나서’, ‘당황해서 심폐소생술 할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각각 25%로 나타났으며 ‘법적문제가 생길까봐’ 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교육이 활성화 될 경우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기본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인의 심정지 목격시 심폐소생술 시행을 시행하겠다는 응답이 61.5%, 시행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8.5% 가족의 심정지에 비하면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김숙향<sup>4)</sup>의 연구결과 53.8%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해를 끼쳤을 때 도와준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 되어서’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당황해서 심폐소생술 할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23.3%,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20% 순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1순위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홍보’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확충 및 일반인 교육확대’ 11.5%, ‘구호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의 제정’ 7.7%, ‘경찰 공무원, 여객 운전자 등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격려’ 1.3% 순으로 나타났다.

###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일반인의

<표 4> 심폐소생술 수행 의지 및 수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인식

(N = 78)

특 성	구 분	실 수	빈도(%)
가족 심정지 목격시 심폐소생술 시행여부	예 아니오	66 12	84.6 15.4
아닌 이유 (n = 12)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5	41.7
	혹시 해를 끼칠까봐 겁이 나서	3	25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1	8.3
	당황해서 심폐소생술 할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3	25
타인 심정지 목격시 심폐소생술 시행여부	예 아니오	48 30	61.5 38.5
아닌 이유 (n = 30)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6	20
	해를 끼쳤을 때 도와준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되어서	17	56.7
	당황해서 심폐소생술 할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7	23.3
심폐소생술 시행의 활성화 방안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홍보	62	79.5
	구호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의 제정	6	7.7
	경찰 공무원, 여객 운전자 등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격려	1	1.3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확충 및 일반인 교육 확대	9	11.5

교육 및 수행의 활성화 방안을 파악하여 향후 심폐소생술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응급환자 소생률을 제고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내 소재한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수락한 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김숙향<sup>4)</sup>의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2007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수집되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작성법 요령에 대해 숙지시킨 후 작성하게 하였으며, 설문지에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78부를 SPSS Win 10.1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98.7%, 여자가 1.3%였다. 나이별로는 40~49세가 66.7%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경력은 16~20년이 33.3%, 11~15년 30.8%, 21~25년 20.5% 순이었다.

둘째,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이나 수행이 보편화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82.1%가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 응답을 해주었다. 보편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5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폐소생술 교육은 전체 대상자 중 94.8%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교육시작 시기로는 중·고등학교가 적절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61.5%였다. 반복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6.2%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반복시기로는 6~12개월마다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9.7%로 가장 많았다.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 방안의 우

선순위로 학교교육의 의무화가 79.5%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의 심정지 목격시 84.6%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타인의 심정지 목격시에는 61.5%만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가족의 경우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가 41.7%였으며, 타인의 경우에는 56.7%에서 '해를 끼쳤을 때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폐소생술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으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79.5%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반인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며, 일회성 교육이 아닌 반복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추후 연구는 더욱 많은 대상자를 포함시킨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 본 연구에서 심폐소생술이 전 국민에게 확대 보급되어지도록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3. 여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1. www.nso.go.kr, 통계청, 통계자료, 2006.
2. Braunwald E, Zipes DP, Libby P, Bonow RO.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7th ed.

- Philadelphia : Elsevier Saunders, 2005; pp.865-908.
3. 황성오, 임경수. 심폐소생술과 전문심장구조술. 서울 : 군자출판사, 2006.
  4. 김숙향.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활성화 방안.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5. 이정순. 병원 간호사의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현황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 Kliegel A, Scheinecker W, Sterz F, et al. The attitudes of cardiac arrest survival and Their family members towards CPR courses. Resuscitation 2000;47(2):147-154.
  7.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MDs review CP knowledge, encourage patients to take course. CMAJ 1997;157(9):1911.
  8. Robert AS, Raymond EJ, Mara C et al. Bystander CPR, VF, and survival in Witnessed, Unmonitored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nn Emer Mwd 1995;25: 780-784.
  9. Ritter G, Robert A, Sidney G. The effect of bystander CPR on survival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victims. Am J Surg 1985;110:932.
  10. Thomson RG, Hallstrom AP, Cobb LA. "Bystander-initiated CPR in the management of ventricular fibrillation". Ann intern Med 1979;90:737.
  11. 안무업, 김영식, 황성오 등. 병원 전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의 결과. 대한응급의학회지 1992;3(2):27-36.
  12. 김승호, 정태녕, 박인철 등. 목격자의 형태가 병원 전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에 미치는 영향분석. 대한응급의학회지 2005; 16(1):93-98.
  13. 박재황. 응급실 도착전 사망환자에 대한 분석. 대한응급의학회지 1992;3(1):79-83.
  14. 최은경. 기본심폐소생술 2000년, 2005년 지침 교육 후 실기수행능력 비교.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15. 대한심폐소생술협회.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 사업 최종 보고서. 2006.
  16. 김종근, 최마이클승필, 서강석 등. 병원 전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의 분석. 대한응급의학회지 2002;13(1):5-11.
  17. 이문희. 심폐소생술 교육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Abstract =

## Plan for Activation of CPR by Laypersons

Ji-Yeon jung\* · Chung-Sin Shin\*\* · Sang-Yol Sin\*\*\*

This study was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develop CPR training program for layperson by looking into layperson's recognition and attitude of execution of CPR and to prepare for underlying data in drawing up training policy and suggesting relevant legislation so that trained laypersons can positively perform rescue activities.

The survey was done from August 20 to September 20, 2007. Total Subjects in this study were 7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Program.

The summary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

First, to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recognition or performance of CPR is universal within the country, 82.1% of respondents gave a negative answer as 'No', The most reason was found to be 'Poor training and P.R. of CPR' accounting for 50.1%, 94.8% of the whole respondents answered that CPR training is necessary. As plan for activatin of CPR training, they answered that top priority shall be given to compulsory school training(79.5%).

Secondly, when respondents observed their family's cardiac 84.6% of them answered that they would conduct CPR but when they observed other's cardiac arrest, just 41.7% of them answered it. As an effective CPR activation plan, the most answer was training and P.R. of CPR as 79.5%.

This study suggests that laypersons high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PR and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provide CPR in a medical emergency.

**Key Words :** Laypersons,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2007. 10. 18	2007. 11. 4	2007. 12. 2

\*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Jeonju Kijeon College

\*\* Dept. of Nursing, Jeonbuk Science College

\*\*\* Jeonbuk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Center